▪ 교회소식 ▪

1. **의무헌금** : 오늘 의무헌금을 봉헌합니다. 헌금은 예배 전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2. **임원교육** : 임원교육이 오늘 오후 1:30-3:30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신천 임원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부회의** : 교육부 회의가 12:20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4. **기부금증명서** : 기부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재무부실(지하 식당 옆)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주차** : 이제 선린학교 주차장에 주차가 불가합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봉사** : 교회학교, 찬양대, 부서에서 활동하길 원하시는 분은 '의무헌금' 봉투 봉사희망란에 표기해주세요.
7. **구역회** : 구역회가 다음 주일(15일) 오후 1:30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8. **신앙실천** : 새해에 지표로 삼고 살아갈 말씀을 메모지에 써서 자주 보고 암송하며 생활합시다.

다음 주 설교 본문

		설교	기도	성경봉독
다음 주 예배위원	1부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목사	김인걸 장로	강세기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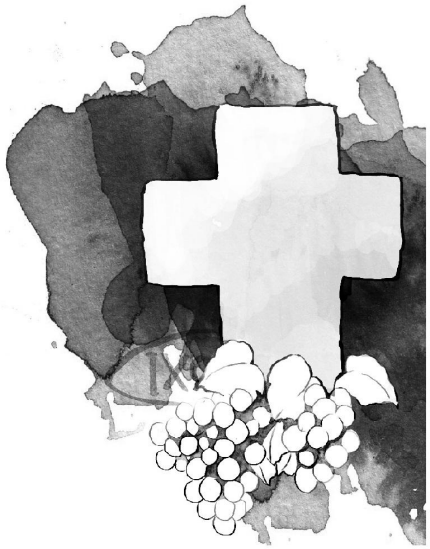
1월	1부 영접위원	박미연	헌금위원	하현철
	2부 영접위원	한완식 임주빈 이순용 고숙이 최현옥 김신실		
	2부 헌금위원	김인걸 정영선		

오늘 식당 봉사	임정자 한선희 정연경 양경해 오슬기 신동완 이국노 홍윤선		
다음주식당봉사	안홍숙 이증자 이수정 노성희 신현숙 최재욱 임선양 홍순구		
오늘설거지봉사	5여선교회(46-50세)	**다음주설거지봉사**	6여선교회(41-45세)
커피 판매 봉사	5여선교회	**떡 대 접**	김준호 곽혜자

2017-2 1월 8일

109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빛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주현 후 1주】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주님 나라는(×3)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17. 사랑의 하나님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우리의 그릇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희망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응당한 위로를 받지 못한 채 큰 고통 속에서 지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위로와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그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겨울꽃들처럼 끝끝내 승리하게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마 5:8,9 ····· 인도자

▲ 교 독 문 ····· 121. 주현절(1) ····· 다 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함께

2부대표기도 ····· 한완식 장로

2부응 답 송 ····· 찬양대

2부찬 양 ····· 312.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 다 함께

▲ 성경봉독 ····· 출 17:1-7 ····· I. 인도자 II. 류건형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2부찬 양 ····· 완전한 사랑 ····· 찬양대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에 겨워
우리도 서로 서로 사랑하며 살리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 하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석남 김광일 이부용 김나름 김문주 김영희 김재환 김진선 김종락 박영신
김주영 김홍위 김희선 황정희 류건형 이주은 박상욱 박숙미 방 민 방 준
송인선 안현숙 왕수명 유금주 윤순우 윤영미 윤주원 최윤선 이광석 이경희
이광섭 김수연 이국노 김민화 이근식 신영신 이동권 이증자 김창경 이현순
임서영 임주빈 최현옥 임형욱 장재영 김재영 정원석 김현영 한선희 한인철
조윤숙 홍순복 무명1

감사헌금
강석남 강신철 이혜경 권혁래 김혜순 김기석 김희우 김대규 박경애 김명숙
김성순 김승주 김애경 박성수 김영호 김예준 김재환 김진선 김재흥 최희영
김주선 김준호 곽혜자 김중수 이순정 김지혜 김창숙 김은종 김철수 유영남
김필순 김홍위 김희선 황정희 김희진 박홍재 노진래 최형경 문금석 박기영
박기원 이미영 박미희 박병구 김인순 박숙미 박옥식 박재영 이현정 박재숙
박준민 최광희 박창균 김현정 박종배 방경선 신다현 심해성 안성호 김희숙
안현숙 양경해 오진훈 노순옥 유중희 이계선 이소순 이광재 이범석 류정욱
이봉옥 이성원 이우원 옥귀희 이유선 이재문 이재희 노승현 노성찬 이한림
김명희 이현규 이현죽 임광호 김혜라 임선양 신현숙 전아영 정다운 홍예선
정이든 정학성 김현숙 정현모 권정연 조영순 조혜윤 주현철 강미선 추은총
최미선 최옥자 최형서 한종윤 홍순구 안홍숙 홍순복 홍윤선 황현성 이오복
무명15

녹색꿈헌금
김용진 박효선 김향자 문복순 이주영 오재영 최희영 무명1

생일감사헌금 이순이

▪ 집 회 안 내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임원교육	**낮 집 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마음으로 읽는 글** ■

겨울 아침

눈 위에 콕콕 찍어놓은 새 발자국
비틀거리지 않고 걸어간 새 발자국
한 글자도 자기 이름을 남겨두지 않은
새 발자국

없어졌다, 한 순간에
새는 간명하게 자신을 정리했다

내가 질질 끌고 온 긴 발자국을 보았다
엉킨, 검은 호스 같았다

날아오르지 못하고,
나는 두리번거렸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 도 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 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 휘 : 강석남 안홍숙
반 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교회 및 차량 관리 : 김현동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그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하세 그 사랑을 찬양하세

말 씀 ……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 ……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 함께
2부찬 양 …… 다 함께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부족과 결핍을 받아들이며 사십시오.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지 말고 주님의 종이 되어 사십시오.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이가 되십시오.

다 함 께: 아멘. 늘 부족한 것만을 헤아리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소유에 집착하기보다 소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 복 …… 김기석 목사

모든 이들에게 빛을

공현(公現)[1]이란 드러남을 의미한다. 어떤 의미에서 공현은 성탄을 우리끼리만 하는 기념제로 국한시키고 싶은 유혹을 벗어나게 해 주고 역사의 갈림길에 있도록 해 준다. 역사의 길들을 가는 남녀들에게 공현은 부르심이요, 도전이다. 공현은 장애물들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왔다는 사실을 다시 밝혀 준다.

베들레헴, 도시들 중에 가장 작은 도시

마태오의 서술은 매우 다채롭다. 예수님이 태어난 뒤 현자들이 찾아왔다. 복음서는 현자들이 몇 명이었다고 밝히지 않으며, 왕들이나 다른 인종(색별)인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보의 부족은 그리스도교적 전통의 상상력에 의해 채워진다. 그래서 복음서는 더 다채롭다. 아마 그들은 현자들, 사제들, 아니면 점성가들이었는지 모른다. 그들은 아기를, "유다인들의 임금"(마태 2,2)을 찾고 있었다. 예기치 않은 방문객들의 도착은 권력가들을 불안하게 했다. 헤로데는 율법학자들을 모아 놓고 묻는다. 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대답한다. 미카 예언서를 인용하면서 마태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모습은 작아도, 베들레헴은 결코 유다의 땅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복음사가는 후에 "가장 보잘것없는"(마태 25,40.45) 이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한다. 베들레헴처럼, 처음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은 미천하지만, 그들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므로 결코 작은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들이다.

현자들은 아기를 만나 경배한다. 여기에서 복음서 구절은 아름답게 마무리를 한다. 헤로데의 계략을 알게 된 현자들은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마태 2,12). 우리는 현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됐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서에서 길을 바꾼다는 것은 회심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회심은 주님을 만난 뒤에 나타나는 결과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다른 길을 선택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신비의 계시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신비는 수수께끼가 아니며, 어떤 풀 수 없는 문제도 아니다. 신비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실재이며, 따라서 우리의 온전한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신비가 어떤 선택된 소수에게만 국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바오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방금 드러난 것에 대해 에페소인들에게 말한다: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에페 3,6)는 사실이다. 이것이 공현의 핵심이다. 동방의 현자들에게 계시된 것이 이방인들에게도 드러난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교의 전통은 다양한 국가들과 다양한 인종들의 대표들이 모일 때 제대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사야서의 구절은 공현 축일의 매우 기본적인 상징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이사 60,1)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빛은 "온 땅에 덮여 있는 어둠"(이사 60,2)을 벗겨낸다. 모든 국가들이 이 빛으로 몰려들 것이며,(이사 60,3)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는 초대를 받고 있다.(마태 28,19) 그렇기 때문에 공현은 위대한 복음 선포의 축일이다.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모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모순이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 신앙은 사적인 것이나, 내적인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신앙은 대화와 공동체 생활을 요구한다.

- 구스타보 구티에레스

---

* 주현절 : 1월 6일. 서방 기독교에서는 동방 박사가 예수를 찾은 때로 보고, 동방 기독교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준 때로 본다.